

200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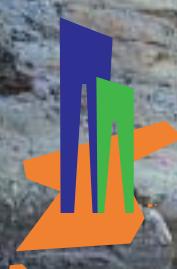
햇불

2 · 28 제9권 1호 통권33호

기념사 2 · 28제49주년 기념사

특집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어교육 정책방향

특별기고 “대구근대역사관”이 조성된다
김상규의 명사 인터뷰 - 정현기
2 · 28청춘은 그대들의 기슴에도



사단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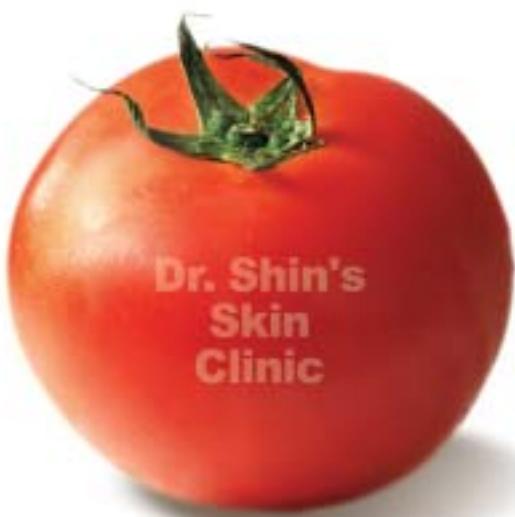
2 · 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 · 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내 피부, 투명하고 상큼한
토.마.토를 닮.았.다!



여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인증점 제071211-충-53253

진료시간 AM 9:30~12:30 PM 2:0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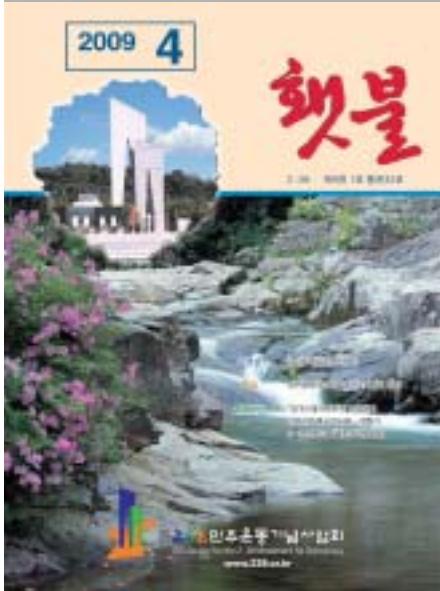
화요일(오후 8시) 및 토요일(오후 6시) 연장진료

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목요일 진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87-2번지 ITEL 053.423.7575

온라인 예약
www.shinpibu.co.kr

서울대학교병원합동의원
www.sdh.or.kr



제9권 1호 통권 33호 봄
발행인 / 안 인 육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09년 4월 6일
발행 / 2009년 4월 6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제작 / 신문사(053)474-9000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에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햇불

2009년 4월 제9권 1호 통권 33호 봄

- | | |
|----------|---|
| 2·28 기념식 | 04 2·28 제49주년 기념사
/ 안인육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 2·28 특집 | 10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어교육 정책 방향
/ 이병옥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 특별기고 | 14 “대구근대역사관”이 조성된다
/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18 김상규의 명사 인터뷰 - 정현기
/ 김상규 햇불 편집 주간
26 2·28청춘은 그대들의 가슴에도
/ 이대우 부산대 명예교수 |
| 문예광장 | 30 大邱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정의와 뜻심의 도시다.
/ 하오명 수필가 |
| 자유기고 | 36 ‘참’이라는 말 / 강혜림 시인
38 3·15의거 제49주년 기념식을 다녀와서
/ 백진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 2·28 일지 | 40 민주의 햇불 2·28 / 임 랑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42 2009년도 정기총회
44 2·28 법인사무실 이전 현판식
45 2009년도 2·28 모범학생 표창자 명단
46 2·28 산악회 자연보호활동
48 2·28민주운동 제50주년 사업계획
50 2·28 일지 |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회안내

※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돋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 정신의 계승발전과 우리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회원명단은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2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비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2·28 제49주년 기념식



기념사

안인욱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녕하십니까?

저는 2009. 1. 22. 개최된 2009년도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안인욱입니다. 일찍 인사를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 2·28민주운동 제49주년 행사시 제가 말씀드린 記念辭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해량(海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8민주운동 제49주년을 맞아 공동의장 김범일 시장님, 김영일 부지사님, 최문찬 시의회 의장님, 신상철 교육감님, 4·19기념사업회 박윤석 회장님, 3·15의거 기념사업회 백한기 회장님과 경향 각지에서 오신 귀빈 그리고 회원, 학생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2·28기념탑 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게 됨을 대구·경북도민과 함께 경축(慶祝)해 마지않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960년 2월 28일, 3·15마산의

거, 4·19혁명의 불씨가 되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풋돌이 된 2·28민주운동은 그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가 극에 달했고, 정권을 장기 집권하기 위한 음모와 술책이 횡행하였으며, 수성천변에서 2월 27일 여당 대통령 후보 연설에 이어 28일 야당 후보 장면 박사 선거 연설회에 학생 참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당 경북도당이 치졸(稚拙)하게 일요일 등교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여 일요일 등교가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고등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청을 향해 노도

(怒濤)처럼 달렸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암울했던 식민지 생활, 한국 전쟁, 정부수립 초기 정치적 혼란 등으로 짓밟힌 국민 특히, 대구·경북·영남인들은 뜨거운 감회의 눈물을 흘리며 학생과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운동을 지지해주었고 대구 지역 언론 또한 아낌없는 찬사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경찰과 형사들에게 쫓기던 학생들을 피신시켜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옷도 제공해 주셨던, 이미 고인이 되었을 서비스런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49주년인 오늘, 우리 모두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이면 2 · 28민주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역대 의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동참으로 2 · 28 대구 학생의거 기념식(종합운동장, 대구 중 · 고생, 대학생 시민 3만명 참가)을 거행하였고, 전국 애국시민과 학생 성금으로 명덕 노타리에 2 · 28학생의거 기념탑 건립, 기념탑 두류공원으로 이전, 2 · 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발족, 2 · 28민주포럼, 횃불지 발간, 2 · 28기념중앙공원 준공, 조례제정, 글짓기 공모 등 혁혁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할 시점에서 2 · 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 경북 · 영남인의 책무요 대명(大命)으로 1960년 2월 28일 당시처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수행해야 할 절체절명의 일인 2 · 28민주운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되고, 2 · 28민주 정신의 대구 · 영남인의 정신으로의 승화, 계승 · 발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홍보 · 교육자료 제작, 학생 · 교사 교육기회 확대, 종적 · 횡적으로 회원 배가 운동, 자료 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확보, 50년의 족적 정리와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대비하는 사서(史書) 발간 등을 통해 2 · 28민주정신이 21세기 미래 지식 ·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구시민정신으로 거듭나게 하고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던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고, 이의 재창출로 영남인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2009년 기축년에는 국민이 한 단계 성숙하고 국가와 국민 경제가 성장하도록 빌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가득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2009. 2. 28.

| 2·28 제49주년 기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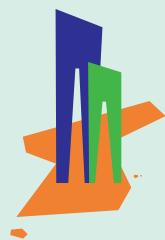




226



제49주년 2 · 28민주운동 기념행사 스케치





제49주년 2 · 28민주운동 기념행사 스케치



2 · 28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어교육 정책 방향



이 병 옥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 통과 통신이 발달한 지구촌 시대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웃이며, 이웃 나라와 교류나 협력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영어는 국제어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의사소통 및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인터넷의 80%가 영어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쟁

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어교육을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여러 해 전부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사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추가하여 학교 수업만으로 누구나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수한 영어 교사 확보 및 육성

첫째,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영어 교사 선발을 위해 초등교사 신규 임용 시험에 영어 면접을 추가하였으며, 중등 영어 신규교사 임용 시험에서도 영어 회화 능력, 영어 논술 및 영어로의 수업 진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교사 연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모든 영어교사로 하여금 3년 주기 60시간 이상의 우리교육청 주관 영어 관련 연수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영어 교사간의 영어 능력 개인차를 감안하여 수준별·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TESOL 연수 및 6개월 과정의 심화연수를 중점 추진 연수로 설정하여 향후 5년 이내 초등 영어전담교사 400여 명, 중등 영어교사 1,000여 명 정도를 이수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이 향상되고 영어수업의 혁신을 가져와 공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력 신장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원어민 수업 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영어담당 전문직과 단위학교

의 영어교사가 담당하는 원어민 수업장학은, 채용 초기에 원어민에게 Teaching Skills를 지도하고 한국문화전반을 교육함으로써 원어민의 우리 사회 적응과 영어수업 내실화에 기여했습니다.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내실화 및 평가 방법 개선

첫째, 영어수업 내실화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2008년부터 주 1시간 이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습 능력 및 교사의 수업력 제고와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영어 학습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종전처럼 기존 학급을 단순히 상·중·하 또는 상·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기존 2~3학급+1학급」 체제로 수준별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어 수업을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준하여 평가 목표를 설정하는 등 평가 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의 각종 연수 및 동교

과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기 고사 및 수행 평가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영어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한 영어 사용 기회 확대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공교육의 영어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흡수하기 위해 영어 체험 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주관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의 영어 체험 행사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캠프 및 영어 체험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에 익힌 생활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기회가 되어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동기 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는 계층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학교 단위 영어 체험 행사인 영어 캠프, 외국 문화 체험의 날 등은 영어교사와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가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생생한 영어 사용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 교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점차 확대 배치하며, 원어민과 학생들이 수업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EOZ(English Only Zone)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30%정도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배치율을 매년 10%이상 늘이며, 2009년 9월부터는 약 200명 정도의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초·중·고에 배치하여 방과후학교 및 수준별 영어수업 시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영어수업의 질적인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달성군 지역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7개 초등학교에 TaLK 프로그램 (Teach and Learn in Korea,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대학생 및 대학 교환학생 원어민과 국내대학생 1~2명이 팀을 이루어 농촌 및 도시 밀집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회화 수업을 하는 것으로 2009학년도 2학기에는 19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 인프라 구축

첫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하여 수업발표대회, 교

과교육연구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영어 교과 수업 공개를 확대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모델 및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 우수학교 공모제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 및 예산 지원으로 단위 학교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와 정보 공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준별 수업 및 방과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2008년 12월에 초등 143개교, 중등 106개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비 1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단위학교별로 영어체험(전용)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2009년 말에는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타 학교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와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갈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혼이 담긴 노력과 학생·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영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학교 영어교육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대구근대역사관”이 조성된다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리시에서는 학문과 정신문화의 중
심지역인 대구의 역사적인 위상과
그 중요성이 깃든 경상감영과 일제강점
기 경제적 침탈의 상징적인 건물인 조선
식산은행(구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을
전통문화원형과 첨단 문화컨텐츠가 연계
된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감영에 대한 재조명과
한국근대사에 차지하는 대구의 비중과

역할, 인물 현장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과 대구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역사의 산
교육장과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예
정입니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은 1931년 일
제가 건립한 건물로 지금까지 당시 건축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2003년 4월 30
일 우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
었습니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은 전
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근대



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근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역사교육의場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개항 후부터 1960년 2·28민주운동까지를 대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해방이후 혼탁한 과도기에 보여준 대구시민의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과정과 국민적 역량이 총집중된 한국전쟁의 낙동강방어전투, 반독재 및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통일운동을 통한 대구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 언론, 시의회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륜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구근대역사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내부전시시설공사를 거쳐 2010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상감영 내 선화당·정청각의 복원 정비와 안내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조선시대와 근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 테마공간으로 도심 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구향토역사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대역사관련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었으며 금번 대구근대역사관 조성을 계기로 전국적인 유물 기증·기탁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증(탁)자에게는 예우와 함께 기증된 유물의 귀속과정을 거쳐 대구근대역사관에 영구히 보존되고, 기탁된 유물은 일정기간 전시 후 반환되며, 각종 전시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유물 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김상규의 명사 인터뷰 – 정현기



김상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횃불편집 주간

문학 작품은 작가가 생산하고 독자가 수용하는 것이지만, 작가에서 독자로의 일방적인 소통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작가의 개성이나 세계관이 작용하게 되고, 또 그 시대의 사회 현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도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작가의 작품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작품이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독자를 염두

에 두고 창작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작품이 실재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에는 작가의 개성 혹은 세계관, 당시의 사회 현실, 가상 독자의 기대 지평과 같은 컨텍스트(context), 즉 소통 맥락이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작가가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여 작품을 창작했다면, 독자는 작품에 드러나는 여러 측면을 작가의 개

정현기 선생

1942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해 연세대 국문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문학사상』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었다. 비평집 『한국 근대 소설의 인물 유형』, 『한국 문학의 사회사적 의미』, 『소설 인간학』, 『비평의 어둠걷기』, 『한국 문학의 해석과 평가』, 시집으로 『시에 든 보석』, 『흰 방울새와 최익현』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성적 세계관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자는 이러한 작가와 독자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직접적 연결보다는 간접적 연결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곧 문학에 대한 평론을 읽음으로써 독자가 지닌 작품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문학 평론가의 작업이 심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즉, 독자와 작가의 논의에 직접적인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곧 문학에 대한 평론이

채워주어야 하지만 혹여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분석, 전달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독자와 작가, 혹은 작품의 내용과 시대적 요구 등이 괴리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평론은 가히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작가보다 혹은 독자보다 더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정현기 선생을 만나 그의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본다.

우선 정현기 선생하면 『토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윤흥길 선생이 거두절미하고 “《토지》는 정현기 선생한테 배워야 해.”라고 했던 것처럼 선생은 박경리 선생뿐만 아니라 토지와의 인연도 상당히 깊다. 선생은 “박경리 선생은 나의 스승이자, 어머니이다. 그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격려해 주신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박경리 선생에 대해 특별함이 있겠지만 나 역시 그분의 사위인 김지하를 숨겨준 일뿐만 아니라 작품과 삶을 통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라며 회고한다.

그런 의미에서일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문학 작품으로 《토지》를 선정해 주셨다. 선생은 “《토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커다란 철학적 글쓰기 원칙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존엄성 공리이다. 모든 존재는 그것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다. 이 존엄한 존재는 어느 누구에게도 훼손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작품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철학적 명제이다. 이 주장을 위해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침해하였고 더럽혔는지를 그는 수많은 인물들의 방황과 슬픔, 조마조마한 삶의 행적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친일파이고 욕망의 악귀인 조준구의 극악한 행적들은 바로 그 상징적인 죄악의 증거로 살아 있다. 그는 남의 존엄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엄성조차 팽개치는 불쌍한 존재이다.

둘째, 철학적 공리는 운명에 대한 질문공

리이다. 어째서 인간은 자기 굴레를 깊어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질문공리가 그것이다. 《토지》는 끊임없이 우리들 삶의 문제들에 대해 묻는다. 문학작품은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묻는 행위를 한다. 문학작품은 대체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 《토지》 또한 여러 형태의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 시원한 해답은 숨겨져 있다. 왜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사악하고 잔혹한가? 왜 이런 사람은 그렇게 순박하고 남에게 짓밟히기만 하는가? 왜 이런 사람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등. 이것이 작가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셋째, 철학적 공리는 사랑 곧 창조라는 공리이다. 임명희가 정략결혼으로 만난 귀족 조영하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던지는 비명은 다음과 같은 언명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 배추를 정결하게 씻어 맛있는 김치라도 담가 먹도록 배려한 적이 있는가? 텔실로 정성껏 짠 옷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동설한을 이기도록 주어 본 적이나 있는가? 이런 통렬한 질문을 통해 작가는 사랑이 곧 창조임을 강조하여 놓았다.”라며 《토지》를 읽을 때 필요한 즉 작가와 독자 사이의 길을 정해 주었다.

또한 선생은 “평소에도 작가 박경리 선생은 작가됨의 가장 기본은 치열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하여 왔는데 ‘사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치열한 애정이 없다면 작품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소설철학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토지》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의 틀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읽을 수도 있다. 사랑과 미움, 존경과 멸시, 열망과 냉대 등은 이 작품의 격을 만드는 중요한 뼈대이다. 외롭고 단독자로 자신의 정신 하나로 삶을 꾸려 나아가야 하는 이 작품 주인공 최서희와 김길상의 사랑 이야기는 실상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긴 긴장의 밀도를 갖춘 사랑 이야기이다. 자신의 종이나 하인으로 부려 왔던 남성과 혼인을 맺는 일, 게다가 양반 이데올로기가 엄연하게 살아 마음들을 육죄던 1890년대 후반, 1900년대를 가로지르는 시대에는 심각한 대립 축일 수가 있다. 이 두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장면은 정말로 박경리다운 작가적 능력을 보이는 장면이다.

이 최서희 김길상 부부로 맺어지는 큰 사랑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속에 강력하게 드러낸 몇 가지 사랑 이야기 마디들을 대강 정리하면 이렇다. 최서희에 대한 이상현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읽던 《토지》 속에서 가장 강렬하고 애틋한 장면으로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 하던 용이와 월선이의 사랑 이야기, 구천이와 그의 배다른 형의 아내이자 형수인 별당 아씨의 서럽고 무서운 사랑 이야기, 홍이와 장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김길상과 서희의 두 아들의 사랑 이야기 등 무수한 사랑 이야기가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사랑



은 곧 창조다!”라고 작가는 썼다. 미움과 멸시, 탐욕과 성냄, 질투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작품 《토지》를 통

해 보내는 작가의 메시지이다. 마땅히 사랑 받아야 할 사람, 마땅한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할 형편으로 되었을 때 삶은 비뚤어진다.”며 꽤나 오랜 시간을 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큰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부딪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토지》가 주는 경이로움을 만끽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어찌 이리 명쾌하게 그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문학 비평가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순탄치 못했음을 직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과정이 자못 궁금해진다. 정현기 선생은 1960년 4·19가 일어나던 무렵 연세대 국문과를 입학, 5공화국 시절 즉, 학원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절 세종대학교 교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세종대학교는

당시 한 가족이 전권을 휘어잡던 족벌학교나 다름없었다. “그 때, 그들을 포함한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영학과 누구 한 마디 해 봐’라고 하면, ‘아, 하바드의 어쩌구, 저쩌구’하고, ‘음대 교수 누가 노래 한 번 불러봐’하면 음대 교수 누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곤 했어.”라며 이러한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학생들 편에서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때 그는 어문학부장이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짤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된다. 그러나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임용보고 끝’을 통보받은 그에게 과거의 전력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종대학교 패거리들이 안기부를 움직여서,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정현기가 누군지 아느냐? 그를 어떻게 교수로 임용하느냐?’ 라며 한 마디 한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사표를 쓰라네. 그래서 썼지 뭐. 그 때 화장실로 도망을 가던지 해서 쓰지 않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사표를 낸 거야. 물론 나중에는 복직이 되었지만. 아마 1987년도 지났을 때 일거야. 그 때 정부에서 정현기를 다시 복직시키라고 했는데, 당시 연세대 총장이던 안세희가 올 해는 안 되고, 내년에 복직시키겠다고 했어. 그런데 내년에는 안세희가 총장이 아니란 말이야. 총장일 때도 못 시

키는데, 총장에서 물러난 사람이 어떻게 시키겠어.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겠다고 했더니 복직을 시켜주더라고. 그것도 고령자 예우에 대한 특별 채용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물러난 후 선생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9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가 생활고에 허덕임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결과였을까? 그는 자신이 거쳐할 수 있는 집조차 가지지 못하였으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집은 간호학과 제자의 집을 빌려 쓰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선생은 어떻게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는 대학원 석사 때 ‘사상계’라는 잡지에서 ‘해학의 미적 범주’라는 이어령 선생의 글을 읽게 된다. 그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선생은 글을 쓴 이어령 선생을 찾아가고 그가 쓴 글들을 탐독하게 된다. 그 때 이어령 선생은 정현기 선생에게 평론을 써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때 이어령 선생이 내 글을 《문학춘추》라는 곳에다가 실어주었어. 물론 나는 실린 것을 못 봤지만. 하지만 그 곳에서 우선 추천이 된 거야. 그 다음 내가 석사 리포트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이어령 선생에게 보여드렸는데, 당시 이어령 선생이 《문학사상》을 창간할 때야. 그리고 그것을 《문학사상》에다 실어 주셨지. 그래서 그 때부터 ‘평론’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어.”

그 이후로 선생은 평론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몇 권의 평론집을 출간한다. 그런 그는 평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론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용어는 우리 것이 아니야. 가급적 우리말로 우리만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용어를 사용해야 느낌이 살아 있지. 우리 용어가 아닌 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 아마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기를 친거야. 가령 한자나,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잘 모르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자꾸 번역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철학에서는 더 그래”라고 하며 어떤 글을 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통한 우리식의 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 그가 최근에 내놓은 《우리말로 학문하기》라는 책은 곧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 및 그가 말하는 ‘우리말로 표현하기’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글을 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마다 숨겨놓은 작가적 생각이나 의도를 찾아내어 독자와의 소통에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평론가는 어쩌면 작가의 글을 철저히 해부해 드려다 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 좋고 나쁨을 가려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가와 부딪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현기 선생은

이청준 선생과 얹힌 일화를 전한다.

“이청준 선생의 작품 가운데 『인간인』이라는 것이 있어.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서술했는데, 분량도 많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시로써 평론을 썼다구. 시로써 평론을 쓰고 얼마 안돼서 중앙일보 문학가 모임에 갔었어. 그런데 그곳에 와 있던 김○○를 비롯한 사람들이 ‘애들아 저 미친 ××, 정현기 ×× 왔다. 저 미친, 시로 평론 쓴 ××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청준 씨가 말하는 거야. ‘나도 봤어. 그런데 나는 너무 좋았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왜 시로써 평론을 썼느냐’고 묻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가 읽은 서양의 평론은 가령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라던가 브라이튼, 시드니 같은 사람들은 시로써 평론을 썼어. 그래서 ‘내가 그런 글 봤느냐?’라고 했더니, ‘몰라’라고 하더라구. 여하튼 그래서 그것을 평론집에 내지는 못했어.”

정현기 선생은 최근 평론활동뿐만 아니라 『시에 든 보석』과 같은 시집을 낼 정도로 시작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文癖(문벽)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오히려 그의 열정에 경외심마저 느낀다. 선생은 자신이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고려 시대 이 규보는 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의 글을 읽으면 생생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나도 일지(日誌)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남기고 싶은 거야. 아마 오늘 여러분(필자와 기자)이 돌아가시면 또 쓸거야.”라며 그가 쓴 일지를 보여 주었다.

그렇다.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 시간을 놓고, 10분을 놓고, 1분을 놓고 보면 어느 순간도 매 순간 같은 것은 없다. 지난 삶이 우리의 미래를 기약해 주듯, 현재의 열정이 없다면, 그리고 현재의 기록이 없다면 이후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정현기 선생과의 대담은 이 미친한 필자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가령, 필자가 이제껏 글을 써 오면서 이렇게 고심하고, 고심해도 글을 쓰지 못할 일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은 대학 초년생 때의 실력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정현기 선생은 그런 분이다. 필자로 하여금 허위와 가식이 없게끔 만드는 사람. 아마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가 단 한 마디의 보탬이나 거짓이 없었으리라 여긴다. 오히려 곁에 있으면 천진하게 물들 것 같은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필자가 시인은 아니나 정현기 선생을 만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수 읊어본다. 문학이란 누구나 창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으므로 즐거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필자를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당신이 지은 집으로 누구나 부르셨습니다. ■

동네 어귀도

길 잊을까 생각되어

하이얀 고무신을 신고 종종걸음을 치셨습니다.

돌집에 사는 당신은

굳음의 의지를 지니시고

벗의 잘못도 그 돌집에 감추셨습니다.

한 평생

내 집 한 번 가져 본 일 없으면서도

당신이 지은 집으로 누구나 부르셨습니다.

하얀 꽃, 파란 꽃,

자주빛 꽃, 그리고 그 속에 배추와 파

넘어 갈 땐 몰랐지만

넘어 올 땐 난 당신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2·28 청춘은 그대들의 가슴에도

이 대 우
부산대 명예교수



글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회귀할 필요가 없다. 2·28은 그대들의 청춘 속에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란 기억의 둥지에 안주하는 본능적 충동에 사로잡혀 미래를 재단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 그러기에 희망을 쏘아 올리기보다는 나른한 퇴영적 추억의 쾌감에 자신을 함몰시키기가 일수다.

청춘은 회고(懷古)의 눈빛으로 시선을 과거에 응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시선으로 미래를 투시하는 것이다. 청춘시대의 학교란 미래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시대를 역주행하는 그 어떤 발상이나 정념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곳엔 오로지 전진의 기상과 선구적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춘의 깃발이 있을 뿐이다. 역사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출하려는 결단도 그대들 청춘의 비밀인 것이다.

2 · 28 정신도 바로 그대들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다. 반세기 전의 역사를 향한 분노와 함성도 그대들의 청춘 속에서 분출되고 있는 정열과 그 기백과 똑같은 것으로 그대들 청춘 속에서 나온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때 암울한 자유당 독재정권을 향해 장렬한 죽음을 각오했고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이 강산을 진동시켰던 것이다. 지식인도, 언론인도, 상공인도 그 어느 누구도 벼랑 위에 선 조국을 구출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춘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없이 다가서는 대열, 그것은 마지막 자유의 정박지였다.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대

열, 자유를 위한 함성과 분노 아니 조국을 위한 쳐절한 절규, 그것은 비단 대구의 고등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뛰어 넘어 세계를 경악케 한 삼엄한 청춘의 찬가였던 것이다. 4 · 19 혁명으로 대단원을 내린 2 · 28은 터키에서 멘데레스 정권을 몰아내고 일본과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학생들을 따르자는 구호가 빛발쳤다.

런던 타임스의 허그로우브 기자는 한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알리는 절망적 멘트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2 · 28 이후 그는 나를 찾아와 그 때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후회하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그에게 “2·28은 단순히 학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고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자유의 투쟁이며 아시아의 캄캄한 밤하늘에 횃불을 올리려는 청춘의 항거”라고 역설했다. 그는 내게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지 말고 자기를 따라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렇다고 편협한 민족주의자의 길을 가려는 것은 아니었다. 청춘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부수어도 부수어도 부서지지 않고 밀어도 밀어도 밀리지 않는 청춘공화국인 것이다. 그 순수의 영혼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겨레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겨레의 앞길을 밝혀갈 수 있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청춘을 잃어가고 있다. 청춘이 노인화되면 조국엔 희망이 없다. 입시가 현실이라고 하

지만 단순한 출세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창조적 힘이 고갈된다면 21세기의 조국은 노인화되고 말 것이다.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응전 속에 창조적 지성은 자라날 수 있다. 젊은 날에 역사적 자아를 구축하지 못하면 먼 훗날 강변의 갈대보다 더욱 혼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금격(金格)이 인격보다 앞서고, 정의보다 부정의가, 원칙보다 편법이, 더불어 살려는 생각보다 나홀로주의가, 남을 배려하는 생각보다 남을 짓밟아 버리려는 생각이, 의리보다는 배신이 판을 치는 공동체적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역도된 현상은 청춘시대의 그 순수함과 투명성이 유실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청춘의 상실은 육체적 연령과 관계없이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청춘을 상실한 사람들이 역사를 집행하는 현장에 선다면 역사는 퇴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써가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노인화시키고 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축음을 앞둔 노인의 의식에서 나온 절망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이 희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과 혁명의 열정도 언제나 청춘의 품속에서 나온 것이다. 청춘은 지지 않는 태양이며 지칠 줄 모르는 전사인 것이다. 청춘은 연륜의 노예가 아니며 일상의 포로가 아닌 것이다. 청춘의 힘은 텔레비전 속의 멜로드라마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비장극(悲壯劇)을 탄생시키려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생을 다하고 임종이 다가온 순간 가장 푸르게 죽을 수 있는 사

람은 그의 생애를 가장 짧게 산 사람인 것이다. 인생은 거치른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청춘의 시련장인 것이다. 청춘의 힘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굴복하고 부정의를 합리화하는 청춘 상실의 벼랑에 서게 된다. 백년이 가도 그의 품 속에 청춘이 살아 있다면 그의 역사속의 봄날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18 세의 청년이 81세의 노인보다 늙을 수 있고 81세의 노인이 18세의 청년보다 젊을 수 있다.

우리의 역사는 지나온 세월만큼 늙어버렸다. 어디선가 한 줄기 청춘의 바람이 불어와 청춘공화국으로 다시 일어설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대들 청춘이 조국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 28 정신은 그대들에 의해 청춘조국이 건설될 때 역사 속에서 높이 승화될 것이다. ■

大邱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정의와 뚝심의 도시다.

하 오 명
수필가, 경제학 박사



젊은이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대구, 대구문화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나눈 적이 있었다. 아래 항목에 대구와 관련이 있으면 체크를 하라는 뜻이었다.

- | | | | | |
|----------|-------------------|--------|------------|----------|
| ■ 명심보감 | ■ 조양회관 | ■ 표충단 | ■ 옻골 | ■ 대구읍성돌 |
| ■ 측백수림 | ■ 조길방 가옥 | ■ 자라바위 | ■ 3 · 1운동길 | ■ 칠성바위 |
| ■ 성모당 동굴 | ■ 현진건 문학비 | ■ 고산서당 | ■ 불로동 고분군 | ■ 뽕나무 골목 |
| ■ 이상화 고택 | ■ 2 · 28학생 의거 기념탑 | | | |

%이상을 맞추는 답안지가 적었다. 대구문화 알리기가 부족했음을 느꼈다.



대구는 팔공산, 낙동강, 비슬산이 아우르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왜장 사야가는 조선에 귀화하여 김충선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 곳, 대구에 살면서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다. 녹동서원과 산속의 묘소를 보면 비슬산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병으로 온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도 대명골에 살았고, 뽕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대구의 대표골목인 <뽕나무 골목>이란 이름이 남아 있다.

위의 김충선 장군과 두사충장군이 팔도강산 중 대구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인심과 안전과 명당이라는 점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다.

광역권 대구의 신 십경(新十景)

제1경 팔공산은 신라 불교의 성지요, 화랑의 수련장이었다.

대구에 찾아온 손님들께 관광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파군재와 왕건, 신숭겸 장군의 일화를 알리고, 신라고찰인 동화사 입구의 마애불 좌상을 먼저 보게 한다. 이어 동화사 통일대불을 참배하고 대웅전을 찾는다. 세 시간 코스다. 얼핏 1,193m의 팔공산 비로봉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갓바위 부처님 불당까지만 해도 산길 계단을 걸어보면 제법 힘든 산길이다. 당일 등산코스로 최고의 산을 팔공산이라고 등산인들은 격찬한다.

제2경 도시 속에 시간이 멈춘 왕릉 공원이 있다.

금호강을 건너 불로동에 오면, 목공예촌이 있다. 전국 목공예 생산의 70%를 대구에서 감당한다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목공예 전시장에서 차상(茶床), 경상(經床—불경을 엎 어두는 상) 등을 둘러보고, 가까운 거리에 선사시대(?) 혹은 고대의 왕릉같이 큰 무덤의 야산을 만난다. 바로 불로동 고분군이다.

관광학회가 열렸을 때, 어느 교수가 “대구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곳은 이 고분공원일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은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의외로 관심이 적은 통과지역이 되어 버렸다.

제3경 비슬산 용연사의 적멸보궁, 석조계단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용연사의 극락전만 보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즈넉한 적멸보궁과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석조계단(石造戒壇)을 꼭 참배할 것을 권한다.

제4경 금호강과 낙동강은 옛 교통과 애환의 서린 곳이다.

사과밭 가까이 흐르는 금호강은 물놀이와 보트놀이를 하는 시민의 휴식처였다. 시비(詩碑), 강변공원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고, 영남제일관(대구읍성의 남문)이 우람하게 서 있다. 낙동강은 해외 무역선과 소금배가 드나들던 옛 고속도로였다. 6·25 때는 격전의 강이기도 한 애환의 1300리, 길고도 긴 강이다.

제5경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산실, 인홍사,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인홍서원 그리고 인수문고(만권의 한적(漢籍)이 있는 문씨 세거지의 문고(文庫)) 등 문화의 산실이 함께 있다.

고려 때 추적(秋適) 선생의 명심보감 목판본을 보고, 인수문고에 보관 된, 오동상자 속의 한적(漢籍)을 살피고, 인홍사의 석탑과 긴 역사를 간직한 적송(赤松)을 보면 대구의 문화향기를 맛볼 수 있다.

제6경 옛 <동산> 언덕에 오르면, 3·1운동길을 만난다.

동산병원과 제일교회를 잇는 계단길은 1919년 삼일운동의 길이다. 이 언덕은 노을이 곱다. 작곡가 현제명의 「고향생각」을 작사, 작곡한 곳이고, 옛 부자 장병천과 평양기생 강명화와의 사랑을 쓴 소설 「강명화 전」의 산실(産室)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7경 대학 캠퍼스는 젊은이들의 문화광장이다.

전국 대학 중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면 누구나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를 추천할 것이다. 본관 건물의 대구읍성돌, 체플의 이스라엘 돌, 행소박물관 등도 둘러볼만 하다. 경북 대학교는 대학박물관과 옥외박물관 모두 훌륭하다. 고인돌, 석조부도, 석조여래좌상, 무술명오작비 같은 자랑스럽다.

제8경 서구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가 우리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서구문화는 가톨릭과 더불어 <성모당 동굴>, <계산성당>, 개신교는 <제일교회>, 중국 문화는 종로의 <중국인 학교>, 일본문화는 도심 주택가에 남은 <옛 일본목조주택> 그리고 <학교 건물>과 진골목의 한옥마을 등 근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열린 도시였다.

제9경 민주화 운동엔 <대구시민>이 선봉에 섰다.

두류공원 인물 동산에는 현진건, 이상화, 이장희, 백기만 등 항일문인들의 시비와 문학비가 서 있다. 같은 시대를 살고, 3·1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다.

<똑심과 의리>라는 시민정신이 항일, 민주화로 이어졌으리라 믿는다. 효시는 대구 2·28민주 운동이었다. 이는 이어 4·19혁명으로 거듭났다.

이를 기념키 위해 명덕로타리에 기념탑을 세웠다. 2·2·8(2탑, 2큰돌, 8각)이라는 이미지로 영남대 김현산 교수가 설계했다. 그 후 집회, 교통 등의 문제로 두류공원으로 옮겨 다시 세웠다. 또한 도심 중심가에 조성한 2·28기념 중앙공원은 젊은이들의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

제10경 약령시, 큰 장, 엑스코에서 메디시티까지

350여 년 긴 역사의 대구약령시는 국제적인 한약장터이고, 넓은 건강센터이다. 약전골 목의 한약박물관도 명소가 되고 있다. 큰 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의 하나이다. 지금은 서문시장이라 부르며 대형 주차빌딩을 갖춘 현대화된 상설시장이고, 섬유, 기물이 유명하다.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는 엑스코와 의과대학,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과학대가 지향하는 메디시티(Medicity)로 향한 열기가 뜨겁다.

대구시민이 애정 어린 눈으로 대구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고장, 걷고 싶은 곳, 문화가 있는 곳, 인정이 있는 곳 등 매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확신이 설 것이다. ■

‘참’이라는 말

햇살 참 좋은 날 산길 걷는데
야외 자연학습장에
‘참나무는 없다’ 네요
그냥 참 좋은 나무이면 참나무라네요

누구든 힘없고 악착스럽지 못하면 좋은 자릴랑
빼앗기기 마련,
바람 부는 산비탈 척박한 땅에도
고마워라 넉넉한 품 열어가는
흔하디 흔한 나무

多情도 병이라 유유상종 안 하는 게
흠이긴 하지만
흉년이 들수록 도토리가 더 많이 열려 그 쌍쌀한 음식으로
배고픈 백성들 먹여 살렸다는

숯 중에서도 참숯이 으뜸이라지요
섭씨 천도 이글거리는 불길 몸에 새겨
참길이 아니면
애당초 쳐다보지도 않았을

참나무 숲에 들어

잠시 깔고 앉은 신문 광고지에 우연히 눈길 주었는데요

참샘하우스, 참좋은물, 참좋은싱싱두부, 참편한나라클리닉,

참좋은건설, 참된교회, 참한의원, 참산부인과…… 참소주

참이란 말, 울울창창하네요



강 혜 린

• 약력 : 1991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으로 <구름 사원> <환한 폐가>가 있다.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42번지 보성은하타운 108동 1301호



제49주년 3·15의거 기념식

3·15의거 제49주년 기념식을 다녀와서



백진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의장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에 대구를 출발하여 9시 40분경에 3·15의거 49주년 기념식장인 국립3·15민주묘지광장에 도착했다.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식장을 정리하는 사회자의 소리가 울렸다. 안인욱 의장이 내빈석에 앉고 박명철 총장과 나는 그 뒤에 나란히 앉았다.

사회자의 잠시 뒤 기념식을 시작한다는 멘트와 함께 “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라고 인쇄된 어깨띠를 꼭 착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계속되고 이어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국민의례와 경과보고에 이어 3·15의거 기념 사업회 백한기 회장의 기념식사에 이어 대통령 메세지, 국회의원 축사 등에서 국회의원 293명 전원이 3·15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

서명을 했으며 아마 내년 50주년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대통령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몰아갔다.

엄숙하고도 메끄러운 사회자의 식 진행과 귀빈들의 축사 등을 통한 기념식이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대통령 메시지를 보훈처장관이 대독하고 이어서 국회의원, 경남지사, 시장에 이어지는 축사의 내용도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3·15는 민주화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4·19의 효시로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3·15가 민주화의 효시로 4·19의 시발이라며 2·28민주운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2·28 대구학생 의거가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로 3·15의거와 4·19

혁명의 불씨가 되었음을 강조하였음에도 2 · 28민주운동이 인정받지 못한 형편이다. 현시낭독, 국가기념일 제정 결의문 낭독과 3 · 15노래합창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참배하실 분은 참배단으로 가시라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기념식은 모두 끝이 났다.

안인욱 의장을 비롯한 우리일행은 3 · 15기념탑(민주의문)을 지나 참배단에 함께 섰다.

우리 차례가 되어 셋이 나란히 참배를 했다. 참배단 정면 좌우로 묘역이 보이고 그 위로 유영 봉안소가 보이는데 그 안에 12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었다.

마산시 구암동 얘기봉에 위치한 국립 3 · 15민주 묘지는 1998년 3월에 성역화사업이 시작되어 2003년 3월에 준공된 마산 시민의 자존심이요, 시민정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럽고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오찬장으로 향했다. 오찬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좋은 곳이였다. 대구미식가들은 한번쯤 다녀간다는 돛섬이 우측으로 보이고 멀리 수평선가까이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교가 아른거린다. 마치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 잠시 후 오찬이 시작되고 이어 3 · 15 백한기 회장의 래빈 소개에 이어 2 ·

28 안인욱 의장의 건배제의를 청했다.

“2 · 28이 3 · 15로 이어져 4 · 19가 탄생됐는데 지금 2 · 28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2 · 28을 인정하지 않는가?”

건배 제의가 아니라 불편한 심기를 유감없이 토로한 성토장이 되었다.

“오늘 같은 좋은날에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3 · 15와 함께 서로 협조하자”는 백회장의 제의로 안인욱 의장의 건배가 끝나고 오찬이 시작됐다.

안인욱 의장은 이 좌석, 저 좌석을 분주히 돌면서 2 · 28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인식시키고 특히 민주화 기념 사업회 법에 2 · 28이 빠진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작업에 협조해달라는 동의를 구했다.

오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끝이 나고 3 · 15의거 백한기 회장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우리일행은 대구를 향했다.

이제 2 · 28민주운동 50주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나온 50주년을 되돌아보고 그 누구의 잘잘못은 탓하지는 말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점이되어 그것이 새로운 50주년을 열어가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

민주의 횃불 2·28

임 랑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오랜 기간 동안 대구에 살면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2·2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서적 중에는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관련된 서적이 많지만 모든 책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4·19 혁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이전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4·19 혁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들은 2·28 민주운동을 단순히 사건적 수준에서 일요 등교지시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우발적이고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2·28 대구학생 민주의 거는 가난과 독재,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대구시민정신의 표출이었고 해방과 더불어 수입되어진 서양식 민주주의의 한국판을 선구한 사건이었다. 동양권에서는 최초로 인권에 의한 민주성취를 이룩한 4·19는 대구의 어린 학생들이 지핀 위대하고 기적 같은 불씨에 의해 발화되었다는 사실을 길이 간직해야 되고 그 정신을 대구가 있는 한 보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2·28 민주화 운동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과서에 2·28 운동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나 또한 2·28 기념사업회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평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나의 의식 어느 한 구석에 민주주의의 횃불을 지핀 2·28 민주운동을 계속 내몰고 있었을지 모른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린나이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여당에 대해 항거하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조차도 현재의 부조리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만을 할 뿐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보다 좀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또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오늘날에 국민 전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여, 투표율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오늘날의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잘 알고 비판의식이 강하다 할지라도 1960년대의 학생들처럼 여당에 맞서서 반정부 시위운동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서슴없이 쏟아낼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곧 4·19 기념일이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민주화 항쟁의 뜨거운 불길을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올해의 4·19기념일에는 4·19운동의 불씨가 2·28 민주운동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그 뜨거웠던 민주화 불씨가 바로 대구에서 일어났고, 자랑으로 여겨달라 알리고 싶다.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09년도 정기총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본회 2009년도 정기총회가 1월 22일 오전 11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2·28 임원,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장기표 신문정책 연구원장 초청 특강이 있었고, 이어서 2008년도 수입, 지출, 사업실적과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어서 류진춘 공동의장의 임기만료로 안인욱 이사를 제7대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서성욱, 김약수 감사를 유임시켰다. 제7대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안인욱 의장은 “우리는 하나다. 할 수 있다.”라고 단합을 강조하고 다가오는 2010년 50주년 기념사업 성공개최와 회원배가운동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제7대 임원

공동의장 : 안인욱

부 의 장 : 권국현, 백진호, 여행웅, 이양강, 장영향, 정태일, 최호근, 황태웅(가나다순)

감 사 : 김약수, 서성욱

사무총장 : 박명철





2·28 법인사무실 이전 현판식

2009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본회 법인 사무실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843번지 문에서 림 4층으로 옮기고 안인욱 공동의장을 비롯한 2·28 임원, 각 급 기관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본회 박명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안인욱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2·28 대구 학생의거의 숭고한 뜻과 정신계승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무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오늘 본회 고문으로 추대한 학교법인 경신학원 김종년 이사장의 협조로 2·28 의거의 뜻 깊은 명덕네거리 인근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본회 사무실을 최용호 고문(산학 연구원 이사장)의 협조로 10여 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뜻 깊은 대구 남산동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기쁨마음과 함께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이날 안인욱 공동의장은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술과 떡, 과일을 올리고 절을 한 다음 홍종흠 고문의 축문 낭독으로 고사가 진행했는데 이날 달서구 김연수 부청장, 중구 김성룡 행정지원국장, 교육청 채우기 장학관, 대구고 우낙현 교장, 경북여고 김영수 교장, 남산1동장, 대구시 관계관 등 많은 내빈이 참석, 축하를 해주어 분위기가 한층 다채로웠다.



2009년도 2·28 모범학생 표창자 명단



상장No	성명	학교명	졸업일시	학반
09-01	김유비	경북고등학교	09. 2. 11.	3-8
09-02	배상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09. 2. 11.	3-1
09-03	장현정	경북여자고등학교	09. 2. 11.	3-2
09-04	권기현	대구고등학교	09. 2. 11.	3-9
09-05	박정용	대구공업고등학교	09. 2. 11.	3-2
09-06	김예원	대구상원고등학교	09. 2. 11.	3-4
09-07	최문영	대구여자고등학교	09. 2. 11.	3-2
09-08	이윤석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09. 2. 09.	3-8
09-09	장호원	경신고등학교	09. 2. 11.	3-3

2·28 산악회 자연보호활동

- 두류공원 일대에서 -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2·28 자연보호 산악회(회장 이석주)에서는 뜻깊은 2·28 대구민주운동 49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 하루 전날 대구두류공원과 2·28 기념탑 주변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이날 49주년 기념식 준비관계로 기관단체를 방문하고 늦게 참석한 안인욱 공동의장은 2·28 산악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2·28 자연보호 산악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등산일로 정하고 있으며 2·28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락처 : 2·28 사무실 (053)257-0228)





2009. 3. 26. 오후 2시 대구시 동구 율하2택지개발지구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참가 선수 4,000여 명의 숙소로 활용될 선수촌 기공식이 열렸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전 바로셀로나에서 감격의 대구개최지 결정의 기쁨을 이어나가 210여 개 국가의 참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대구를 국제사회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셨다.



2009. 3. 15. 오전 10시 경남 마산시 국립 3.15의거 묘지광장에서 제49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본회 안인욱 공동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은 2·28대구학생민주운동기념식에 이어 거행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열사 추모식에 현화 분향했다.

2·28 민주운동 제50주년 사업계획

1. 목적

2·28 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2·28 정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이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자 함.

2. 추진사업

- 1) 2·28 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2·28 정신의 계승발전 방향)
- 2) 2·28 기념관 건립
- 3) 2·28 제50주년 기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년사” 및 50년 특별호 햅블지 발간,
초·중·고 교육교재 개발
- 4) 시민과 함께하는 2·28 문화제
(음악제, 마라톤, 각 동아리 놀이마당, 볼걸이(페포먼스) 제공)
- 5) 50주년 기념식
- 6) 2·28 지원 관련법 제정, 국고지원
- 7) 대구시민의식 변화 조사 연구
- 8) 기타 관련사업

3. 조직

- 1) 명칭 : 2·28 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 2) 구성
 - 고문 : 각계각층 인사, 역대 의장(별첨명단)
 - 명예 위원장 :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 위원장 : 안인욱
 - 상임 자문 : 홍종희, 최용호, 이완식, 김정길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위원장 이방현, 재무분과위원장 정태일, 언론홍보분과위원장 양정봉,
사업분과위원장 김태일, 학술분과위원장 이해두,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여행웅,
교육분과위원장 장무웅, 회원분과위원장 최호근, 회관건립분과위원장 권국현,
법률제정분과위원장 정시식, 국고조달분과위원장 김명환, 여성분과위원장 이양강
 - 간사 : 박명철

4. 임무

- 고문 : 본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 명예 위원장 : 위원회 자문
-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상임자문 : 담당위원회를 총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 1) 총무분과위원회 : 각종 회의 주관, 50주년 기념식 준비 주관
 - 2) 재무분과위원회 : 사업예산 편성, 확보, 집행
 - 3) 언론홍보분과위원회 : 대외언론대책, 2 · 28 제50주년 기념 “2 · 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년사” 및 50년 특별호 햇불지 발간
 - 4) 사업분과위원회 : 각종 사업계획 수립, 점검, 진행, 대구시민의식 변화 조사 연구
 - 5) 학술분과위원회 : 50주년기념 심포지엄, 각종 포럼 계획, 준비, 진행
 - 6) 대외협력분과위원회 : 사업과 연관된 대외협력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7) 교육분과위원회 : 초 · 중 · 고 교육용 교재 발간, 교육용 자료 수집,
청소년 관련 사업 주관
 - 8) 회원분과위원회 : 회원친목, 관리, 회원배가운동 전개
 - 9) 회관건립분과위원회 : 기념관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조 추진
 - 10) 법률제정분과위원회 : 2 · 28관련 법개정 추진
 - 11) 국고조달분과위원회 : 국비지원 조달에 그 직무를 수행
 - 12)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회원을 관리하며 제행사 의전을 담당
 - 13) 간사 : 각 분과위원회 회의소집,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5. 소요예산

국비, 시비,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금, 2 · 28기념사업회 회비

6. 행사일정

(추후 결정)

7. 주최 : 2 · 28기념사업회

후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각구군유관기관단체, 각언론사, 유관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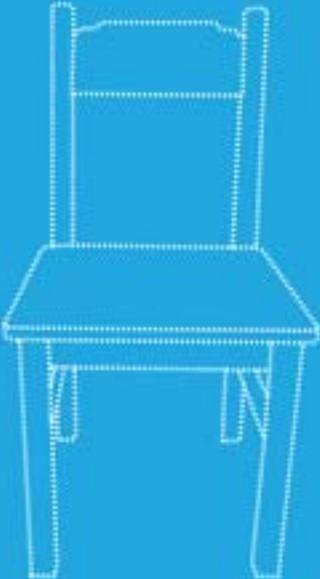
2 · 28 일지

1. 29. 역대의장단 회의(시내)
2. 2. 대구지역 각 언론기관 예방
2. 3. 대구시장, 교육감, 교위의장, 시문화체육국장,
시행정관리국장 예방
2. 6. 1차 법인 이사회(시내)
2. 11. 대구고 졸업식 참석, 졸업생 표창
2. 17. 2차 임원협의(사무처 이전 및 현안논의)
2. 20. 대구시 문화체육국장 이상현,
달서구 부청장 김연수, 중구 부청장 박한규 예방
2. 27.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예방, 경북교육청 이영직 교육정책국장,
임승빈 경북부교육감, 경북도 백선기사회복지과장, 관광협회 예방
2. 27. 2 · 28 자연보호산악회회원(회장 이석주) 두류공원 자연보호활동
2. 28. 2 · 28 제49주년 기념식(대구두류공원 2 · 28기념탑 앞)
3. 6. 2 · 28 법인 사무실 이전 현판식
(대구시 중구 남산3길6(남산1동 843번지 문애서림 4층))
3. 6. 학교법인 경신학원 김종년이사장 고문추대패 전달(2 · 28사무처)
3. 6. 류진춘 제6대 공동의장 공로패 전달(2 · 28사무처)
3. 12. 대구시 조기암 자치행정과장과 업무 협의(2 · 28사무처)
3. 15. 제49주년 3 · 15의거 기념식 참석
(안인욱 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3. 26.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국장 면담
3. 30. 3차 임원회의(50주년추진계획(안) 심의)
3. 31. 대구시자치행정국장예방 업무 협의(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영어
모든 것

영어 교육 전문
모든 것
www.daeguenglis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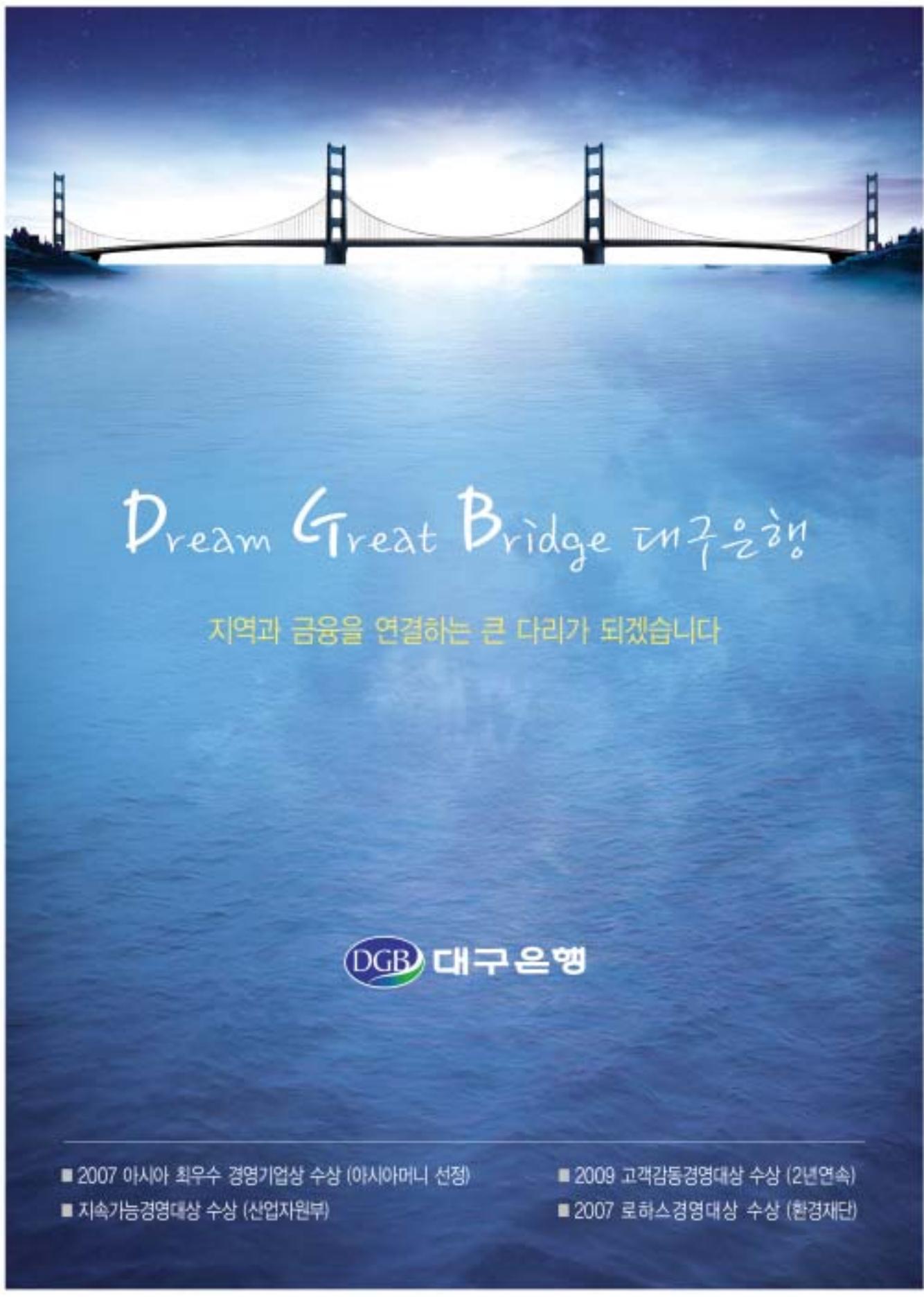
빈 자리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거나 미사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발론의 아이들은 졸업원 학원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발론에서 배우는 영어의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지난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뿐 아니라-
아발론에서는 아이들의 꿈이 영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아발론 교육

대구캠퍼스 · 초등캠퍼스(초 3~6) 782-0077 · 중등캠퍼스(중 1~2) 782-0047 · IVY(중3관·녹지원) 782-0347 · 달서캠퍼스 644-7700



Dream Great Bridge 대구은행

지역과 금융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 2007 아시아 최우수 경영기업상 수상 (아시아머니 선정)
-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 2009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2년연속)
- 2007 로하스경영대상 수상 (환경재단)